

보험업법 개정안 14건 계류… 22대 국회서 10개월간 ‘답보’

보험료 카드납·설계사 결격강화 등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서 묶여
6·3 조기 대선으로 더 늦어질 듯

22대 국회가 개원 10개월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 14건을 쏟아냈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카드납부터 보험사기 처벌 관련까지 소비자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민감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6·3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보험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14건이다. 모두 정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거 기록과 비교해도 답보 현상은 두드러진다. 20대 국회는 개원 10개월 시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10개월을 조금 넘긴



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이미지.

2017년 4월 첫 개정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같은 기간 1건을 처리해 최소한의 진전을 보였다. 반면 22대 국회는 10개월째 0건이다.

22대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개

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집, 제재, 자산운용, 손해사정자 자격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린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안이다. 보험사는 모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유영하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나 형법상 보험사기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보험설계사·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설계사 등록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 없이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회전문 영업’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부당 승환 취소 부활권 법안도 관심사다.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불완전판매를 가려내기 쉬워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장 건전성을 겨냥한 차규근 의원은 보험사 자산운용비용을 산정할 때 총자산과 주식·채권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 지배구조 썸수도 막겠다는 것.

이밖에도 설계사 경쟁계 근거를 마련하고 교차모집 허용 범위를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까지 넓히는 방안,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해 비용을 줄이자는 개정안까지 현장과 밀접한 조항이 대기 중이다.

다만 입법 정체는 소비자·업계 모두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안은 자동납부·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소비자 편익과 카드 수수료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맞서 있다. 설계사 결격 확대안은 모집 질서 강화와 생계 제한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보험사기 형사처벌 관련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은행 예금금리 ‘뚝’, 대출금리는 여전

5대은행 예금금리 연 2.60~2.73%
주담대 금리 변동형 3.31~6.07%
예대금리차 3개월 새 0.23%p 늘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60~2.73%다. 이들 은행이 전월에 취급한 평균금리(2.88%)와 비교해 하단기준 0.28%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5대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내렸다.

신한은행의 불편한 정기에금 금리는 전월 평균 2.89%에서 2.6%로,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같은 기간 2.94%에서 2.65%로 각각 0.29%p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Star)정기

예금은 전월 평균 2.92%에서 2.65%로 0.27%p 내렸고,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2.91%에서 2.70%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0.05%p 인하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금리를 10월과 11월 0.25%p씩 인하하고 올해 월 한차례 더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기준 3.31~6.07%, 고정형(5년물)기준 3.12~5.62%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지난 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4.35~4.52%)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변동형 1.55%p, 고정형 1.1%p 올랐다.

변동형 신규 취급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는 지난해 ▲12월 3.22% 올래 ▲1월 3.08% ▲2월 2.97% ▲3월 2.84%로 낮아지고 있다. 고정형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5년물)도 지 난해 말 3.09%에서 지난 22일 기준 2.74%로 떨어졌다. 그만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대은행의 가산금리는 2월 2.3~3.49%에서 3월 2.31~3.56%로 상단기준 0.07%p 올랐다.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는 상태다. 5대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월 평균 1.20%에서 ▲2월 1.37% ▲3월 1.43%를 나타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출금리와 돈을 맡아주며 지급하는 예금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기조로 심사가 강화된 부분은 있지만, 대출금리 특성상 기준금리를 3~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시그널에 따라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금은 후행지표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싱크홀 공포…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회의
상반기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연이은 땅꺼짐(싱크홀)과 지반침하 사고에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특별 점검한다. 상반기 중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

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하나더소호’
대상 여부·가능 한도 등 간편 진단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와 가능 한도 등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전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고객들은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소진공 방문 없이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사전 진단만으로도 ▲가능 정책자금대출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대출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신한은행, 무료 음성해설 서비스
배우 손현주·송지효 내레이션 참여

신한은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한다.

‘종묘 오디오 가이드’는 관람객이 안내관의 QR코드를 디지털기기로 스캔하면 신한은행의 ‘아름다운 은행’ 웹사이트에 자동 연결돼 무료로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해설은 정전·향대청·영녕전 등 종묘 주요 권역 별로 구성했으며, 각 공간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로 설정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보를 전한다.

특히 이번 오디오 가이드에는 배우 손현주와 송지효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생동감과 전달력을 더했다. 영어·중국어·일본어·수어 등 4개 언어 버전도

또한, 사전진단 후 정책자금 대상으로 판정되면 소진공 대출 신청까지 직접 연계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판정결과와 함께 하나은행의 사업자 전용대출 상품 안내를 제공해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대안 솔루션도 제시한다.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에서 제공되며, 해당 채널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23일 “소상공인 손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스토리텔링 더한 종묘 오디오 가이드

신한은행, 무료 음성해설 서비스
배우 손현주·송지효 내레이션 참여



신한은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한다.

함께 제공해 외국인 및 청각장애인 관람객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3일 “스토리텔링을 더한 종묘 오디오 가이드가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역사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